

법정사 항일운동의 연구, 회고와 전망 *

김 광 식 **

• 목 차 •

- I. 서언
- II. 항일운동의 발발과 배경, 운동 이전의 상황
- III. 운동의 직전 상화 및 전개
- IV. 운동의 종료, 검거, 영향 계승
- V. 운동의 성격, 개념
- VI. 자료, 문헌 자료 및 구술 자료
- VII. 결어

* 본 고찰은 중문청년회의소가 2007년 12월 13일에 주최한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 부천대 교수.

I. 서 언

1918년(무오), 거족적인 3.1운동이 일어나기 불과 5개월 전인 1918년 10월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지역의 법정사 일대에서 일제를 처단하려는 승려, 민중 등 700여명이 항일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가혹한 일제의 식민통치가 기승을 부리며, 우리 민족의 일거수 일투족을 철저히 감시하였던 무단통치하에서 제주도의 그 항쟁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법정사 항일운동은 1995년 이전, 이 항쟁이 본격적으로 연구자들의 손길을 닿기 이전에는 란, 보천교의 소요 등 부정적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5년 이 항쟁에 대하여 연구자(김봉옥, 혜봉, 안후상 등)들이 학문적인 정리를 시작하면서 법정사 항쟁은 일약 일제하 제주지역의 항일운동을 대표하는 위상을 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은 제주도내의 최대 항일운동, 1910년대 종교계가 일으킨 대규모의 무장 항일운동, 식민통치를 부정하는 불교, 선도교, 민중 등 400여명이 집단적으로 항거한 운동, 제주도의 성역화 사업이 동시에 구현 등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 운동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제주도 관계기관의 후원, 협조를 얻어 성역화 사업,¹⁾ 참가자의 포상 실시²⁾ 등이 함께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이제는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본 고찰에서는 지금껏 연구된³⁾ 경향을 성찰

1) 그는 부지정비, 위폐봉안소 및 부대시설, 상징탑 건립 등 항일발상지 성역화 사업으로 현재 57억원이 소요되었다.

2) 참가자 66명중 징역 33명, 벌금 15명, 불기소 18명으로 구분되는데, 33명 중에서 28명이 포상을 받았다.

3) 그 연구를 시간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봉옥, 「법정사 항일운동의 제조명」 『제주도사연구』 4, 1995.

임혜봉, 「제주도 법정사 스님들의 항일투쟁」 『서귀포시』 5, 1996.

하면서 추후에 더욱 연구되어야 할 분야 등을 제시하는 것에 머무르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 성향을 비판적으로 보면 불교적인 관점, 성역화 및 포상과의 연계, 제주도 내적인 관점 등이 관철되었다고 하겠다. 이제는 성역화, 포상 등이 일단락되었기에 연구의 호흡을 넓게 갖고 연구 시각을 탄력적으로 갖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그는 탈 제주도, 탈 불교의 관점을 신중하게 갖자는 것이다. 이런 배경하에 본 고찰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운동개요 ; 발발 이전, 1910년대의 제주 사회, 법정사 현황
준비, 목적 등
- 운동의 전개 및 진행 ; 주체세력, 역할, 민중 참여 등
- 운동의 종료 ; 검거, 영향, 계승 및 변질
일제의 정책
- 운동의 성격, 개념 ;
- 자료 ; 해석, 재해석
문헌자료, 구술자료

안후상, 「무오년 제주 법정사 항일항쟁 연구」 『종교학연구』 15, 1996.
 박찬식, 「1918년 중문지역의 항일운동」 『제주도』 99, 1996.
 , 「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성격」 『제주도연구』 22, 2002.
 김정인, 「법정사 항일투쟁의 민족운동사적 위상」 『제주도연구』 22, 2002.
 김창민, 「법정사 항일운동 가담자와 운동의 성격」 『제주도연구』 22, 2002.
 , 「법정사 항일운동과 지역주민의 참여」 『제주도연구』 25, 2004.
 조성윤, 「무오년 제주도의 종교상황과 법정사 항일운동」 『제주도연구』 22, 2002.
 ,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제주도연구』 25, 2004.
 정궁식,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법적 고찰」 『법사학연구』 32, 2005
 김광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재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2005.
 한금순,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대각사상』 9, 2006.
 오 성, 「근대 제주불교의 태동과 관음사 창건」 『대각사상』 9, 2006.

그래서 필자는 위에서 제시한 법정사 항일운동 내용, 성격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할수 있는 기초를 제고하고자 한다. 이 중에서 필자는 이번 발표회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료집 발간의 문제이다. 자료집 발간이야 말로 이 운동의 탈 제주화를 기획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II. 항일운동의 발발과 배경, 운동 이전의 상황

지금껏 이 분야에 대한 연구자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김연일과 박주석이라는 일 개인의 종교적 성향에 대한 관점에서 불교와 선도교(보천교)의 개입상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최근 이 분야에 대해서도 괄목한 만한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다. 우선 오성은 근대 제주불교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 분석을 배경으로 관음사 창건의 배경과 그 당시 불교상을 복원하였다. 이런 시도는 시도 자체가 신선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필자는 오성이 적용한 사례를 그대로 법정사에서도 탐구할 수 있다고 보고자 한다.⁴⁾ 그리고 최근 한금순도 법정사 초기 상황을 복원함에 있어, 김석윤, 김연일, 방동화, 강창규 등과 관음사에서의 초기 상황을 분석하여 운동의 지평을 확대하였다. 즉, 그들의 민족의식 동질성을 운동이전의 상황으로 이해하였다. 강창규, 김석윤, 방동화는 창건 이전부터 사상적 교류를 통해 항일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4) [매일신보] (1918.3.2), “제주도 아미산 관음사라는 절은 봉려관이라는 여승이 자기 한사람의 힘으로 창조한 절인바, 그 뒤에 안도월을 주지로 삼아 전도에 종사하던 중 신도수가 수백 명에 이르렀으므로, 근자에 그 절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범당을 새로이 짓기도 하였고. 또 이왕에는 범정산 범돌사라는 절도 건설하였더라.”참조. 그리고 『당형석황도인행록』(1937)에도 김석윤이 봉려관과 함께 관음사, 범정사를 세웠으며 모두 지역주민들의 施舍가 있었다고 한다.

이 점이 자연 관음사와 차별되는 법정사의 성격을 가늠하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 이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제주 근대 불교를 상징하는 봉려관의 설화, 비사 등에 보이는 역사 해석의 적극성이 요망된다.⁵⁾

다음으로 이 분야에서 유의할 것은 운동 이전의 민중의 생활, 법정사 항쟁에 참여한 400, 700여명의 존재 상황이다. 일제는 1906년 제주 부를 제주군으로 개편하면서 행정적으로 경제적 수탈을 시작하였다고 보인다. 1912년 지적 측량, 1913년 토지조사사업 보고, 1912년부터 1917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제주 일주도로 건설을 위해 토지를 강제로 몰수하고, 부역을 강제화 하였다. 때문에 운동 발발 이전의 지역 주민들은 일제의 경제적 수탈의 피해상황을 직시하고 있었다. 운동이 전개될 때에 일제 경찰서에 구금된 농민 13명을 풀어준 것은 그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요컨대 식민통치에 의한 경제적 피해상황, 일제가 가해자임을 분명히 인식할 때에 운동의 파괴력이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하면서 당시 민중, 법정사 신도(선도교 교도 등)들이 겪고 있었던 압박, 침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해야 한다. 당시 일제에 무력으로 저항한다는 것은 곧 죽임을 의미한다. 김연일을 비롯한 항쟁 지도부가 대일 투쟁을 설득한다고 해도, 민중의 삶은 그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고, 민중 주체성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지금껏 설명한 배경하에서 추후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혜진, 「봉려관 스님과 제주불교의 중흥」 『한국비구니의 수행과 삶』(예문서원), 2007.

- 법정사와 봉려관
- 1910년대 제주 식민사회와 법정사
- 해당 인물의 생애와 사상(봉려관, 김석윤, 강창규, 방동화, 김연일 등)

역사 해석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과 관계를 논리적,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그를 다수의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과 해석은 어느 경우 미시적인 일, 역사에서 더욱 정확하게 찾아지고,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위와 같은 미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요체를 법정사 항일운동의 총체적인 개요의 설명에 회향, 종합시켜야 한다고 본다.

Ⅲ. 운동의 직전 상황 및 전개

여기서는 운동이 구체적으로 전개되었던 1918년 상황을 점검한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판결문, 보도기사 등)에 의해서 그 내용이 풍부하게 제공되었다. 그러나 이는 대개 일제측 관변 기록이기에 그에 담긴 것을 해체하여 진실,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왜 1918년 10월에 거사를 일으켜야 했는가도 관심의 하나이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1918년,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황을 객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운동의 발발을 구체적으로 촉진케 요인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도 진지한 탐구를 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 발발 이전의 주민의 상황에 대해서는 김창민의 적극적인 자료조사에 의해 그 편

린이 일부 밝혀졌다. 그는 일제에 피체된 대상자를 인근 마을별로 구분하고, 그 중에서 월평마을 가담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조명하였다. 그 결과 그 주민들은 해당 마을에서도 중심적인 위치에 있지 못하였고, 호적중초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중산간 지역에서 개간을 하였던 사람들로, 이들은 해당 지역 인과관계를 보여준 권당관계에서도 주변적인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 이런 분석하에 김창민은 그 참여자들을 민중으로 보고, 나아가서는 그 운동은 종교운동적 성격을 띤 민중들의 항일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김창민이 주장한 종교운동에 대해서는 추후 다양한 접근, 해석이 요망된다. 종교운동이기 위해서는 종교조직, 종교이상, 종교적 가치관의 투영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운동에 참가한 400여명, 700여명은 법정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종교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그 연결 고리를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탐구에 우리는 전력 질주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현전하는 기록에 의지하여 운동의 전개 및 조직을 보면 운동의 추진세력은 전투, 전쟁의 경험이 있었던 대상이라고 하겠다. 이 운동은 우연적, 우발적인 것이 결코 아니었다. 한금순의 논문, 새로운 자료에 의하면 김연일과 박주석, 그리고 김석운은 항쟁의 경험이 있고, 대일항쟁을 하기 위해 제주도에 건너왔다는 정황에서 필자는 이 운동의 기획성, 전투성 등을 인정한다.

한편 위에서 지적한 400여명과 법정사와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제시한 바가 있다. 지금 나온 자료에는 거사 한달 이전에 이미, 거사 기획을 공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가 일제 당국에 누설되지 않은 것은 민중과 법정사와 끈끈한 연계를 느끼게 한다. 이는 종교조직하에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 분야와 관련해서 김광식은 주도세력의 재검토를 하였다. 그는 불교와 보천교, 일반 농민들이 이 운동에 다 참여하였다는 전제

를 하였다. 그리고는 운동의 준비, 전개과정에 나타난 역할, 성격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는 불교계 세력이 주동, 동참을 하였다면 선도교는 단순, 참여세력이었다고 구분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불교가 이 운동을 주도하였음을 강고하게 해 주는 결과를 잉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불교 중심으로 운동이 주도되었지만 선도교와 농민이 결합된 채로 운동이 전개된 연유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였다. 때문에 필자는 이 분야에서 추후 연구되어야 할 분야 및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법정사 항일투쟁에 나타난 종교운동
- 법정사 항일운동의 전개 과정

법정사 항쟁에는 종교운동의 성격도 나타나지만 무장항쟁, 민족운동, 독립운동의 성격도 나옴은 분명하다. 이 양자간의 절묘한 결합을 복원해내는 것이 후학들의 임무이다.

VI. 운동의 종료, 검거, 영향, 계승

법정사 항일운동은 장기간 항쟁의 준비를 기하였지만, 항쟁은 불과 3일만에 종료되었다. 왜? 이렇게 싱겁게 끝난 것일까? 물론 그 요인은 일제의 철저하고, 우세한 장비에 의한 진압책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일제의 탄압 말고, 다른 요인은 없었는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김연일, 방동화, 강창규 등은 일제의 진압을 능히 예상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추후에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그 실체에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운동 종료 후의 일제의 탄압, 법 적용 등에 대해서는 정공식의 분석이 있어 참고된다. 그는 법정사 항쟁의 자료를 분석하여 그에 나타난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하였다. 그는 당시 실체법적으로 적용 법령을 분석하고, 절차법적 체계까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법정사 항쟁에는 형법의 소요죄와 보안법 위반이 해당되지만, 상상적 경합으로 소요죄만으로 처벌을 받았음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는 일제가 처리 과정에서 높은 양형의 구형과 빠른 절차로 진행하였다고 보면서, 이는 법정사 항쟁을 제주사회는 물론 조선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려고 의도라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이 운동을 일제가 지방에서의 불만의 표출만으로 처리하여, 식민지 부당성과 항일운동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내란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리고 4개월도 안 되어 400명 중에서 66명을 검거, 조사하여 44명을 기소한 것에서는 일제 당국의 조급함과 위기의식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공식의 고찰에서 일제의 사건을 대하는 정책적인 성격을 찾을 수 있다면, 김창민의 두 번째 고찰에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함께 당시 일제에게 체포된 대상자 이외에도 운동에 적극 가담한 계층(인물)이 있었음을 증언을 통해 입증하였다. 이 같은 김창민의 지적은 위에서 언급한 정공식의 지적, 일제는 그 처리과정에서의 조급함이 나타난다고 본 것과 동질적인 내용이다. 추후에는 운동이 종료된 이후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과 관점으로 보완 설명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에 관한 필자의 생각을 개진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김창민의 현지조사라는 방법을 통하여 나타난 새로운 연구 시도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를 해 주고 싶다. 인류학, 사회학적인 방법론을 동원하였던 그 연구는 추후 이 분야의 연구 지평을 확대함에 하나의 사례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김창민은 운동에 참여하고,

그 결과 기소당한 비율이 가장 많은 촌락이 하원이었음에 착안하여, 이 촌락에 거주하며 인류학적 입장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그는 하원은 유력인사들의 참여, 유교와 선도교와의 밀접성, 운동의 중심이 불교라는 것에 대한 냉소성 등을 새롭게 밝혀냈다. 이에 그는 불교와 선도교 인사들이 중심이 되고, 중문지역 주민들이 광범위 하게 참가한 항일운동으로 보았다.⁶⁾ 이러한 김창민의 결론은 특정 지역을 연구한 잠정적인 연구 보고이다. 그렇다면 여타 마을에 대한 현지조사, 연구를 거친 후에는 그를 종합하는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필자의 입장을 제시한다. 이는 추후 이런 대상, 분야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임을 전제로 한다.

우선 필자는 김연일은 1년, 강창규와 정규용이 4년여를 제주도에서 숨어 지낼 수 있었음에서 당시 지역 주민들의 이들에 대한 암묵적인 후원,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에 그래서 이런 측면 이외에도 운동이 종료된 이후, 운동에 참여한 마을에 있었던 일, 변화, 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요망된다. 그리고 운동에 참가하였지만 단순 참가하였기에 일제에 피체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심정, 노동으로 생존을 하였는가? 징역형을 받아 실형을 살은 사람과 벌금형을 받은 사람 사이에는 어떤 간극은 없었는가. 그리고 징역, 벌금형을 받은 대상자와 불기소 처분, 일제의 구속을 받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가? 운동의 후유증으로 다른 지역, 육지 등으로 이사를 간 대상자는 없는가 등등 다양한 의문을 해소해야만 된다.

그리고 운동 이후의 문제에서 제기할 뜨거운 내용은 선도교, 보천교의 관련 내용이다. 이 문제는 지금껏 연구자들의 마음을 달구었던 주제였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운동의 성격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였

6) 나아가서 그는 범정사 항쟁이 전형적인 종교운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기본적인 생각은 운동 당시의 상황과 운동이 종료된 이후(1920년대 후반 이후)의 상황을 구분해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1920~1930년대 상황과 운동이 일어난 당시를 혼재하여 이해하는 것은 운동의 성격 이해에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지만 필자의 논리를 인정하여도 그를 명쾌하게 구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예컨대 위에서 소개한 김창민의 현지조사에서 나온 것 중에서 김봉록, 강성진, 김봉인은 매우 열렬한 선도교였으며 무오년 항일운동에도 적극 가담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무오년 당시에 선도교도였는지는 애매하다.⁷⁾ 강성진은 전재산을 헌납하였다고 하고, 김봉록은 선도교 대장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건 이후 도피하였다고 한다. 이전 연구에서 선도교도로 지칭된 강봉환, 김무석, 조계성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김창민 연구에서 나온 김연일을 영웅시 하면서도, 그를 양반(유생)의 풍모로, 도사 같은 사람으로 기억함은 기억의 전승에 대한 여러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하원 마을에서 조금이라도 행세하는 사람은 대부분 선도교도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향교에 출입을 하는 인사들이었는데, 선도교에 대하여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바로 여기에서도 이 상황이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어느 시대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유의성과 가치에 대해서는 조성윤에 의해 그 의미가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에 대한 개요, 성격, 의의 등에 대해서는 제주 내부의 여러 역사적인 사정, 요인에 의해서 변질되었음을 전제해야한다. 이점은 조성윤이 1918년의 항일운동에 관련되었던 선도교는 1930년대의 무극 대도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된 바와 같이, 매우 예민한 문제이다. 그리하여 1970년대, 1980년대에 제주도에서 간행된 다양한 저술에서⁸⁾ 왜 법정사 항쟁이 보천교난으로, 부정적 모습으로 그려졌는지도

7) 이 점을 김창민이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필자는 이 분야 연구자, 관련자들이 선도교, 보천교의 관련은 강조하지만 그에 반해 불교의 관련은 덜 주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다. 이는 운동의 주체가 대부분 불교 승려인 것이 밝혀졌고, 운동은 불교가 관여, 주도한 운동인 면에서 더욱 더 그렇다고 볼 수도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체포, 구금된 66명 대상자 전체의 종교 성향이 조사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각 마을에 가서 조사를 해 보면 운동에 참여할 때의 종교와 그 이후의 종교가 변화되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 운동에 참가는 하였지만 일제에 피체되지는 않은 대상자들의 종교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면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3.1운동과 법정사 운동 참여자
- 운동 이후의 중문지역
- 운동에 참가한 민중들의 종교적 성향
- 운동과 선도교(보천교)
- 운동의 전승과 계승의식

이에 필자는 위와 같은 연구가 조속히, 광범위 하게 착수되길 기대한다.

8) 그 대강의 저술은 다음과 같다.

- 강문호, 문태선, 『제주선교 70년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주지회, 1978.
- 강용삼, 이경수, 『대하실록 제주백년』, 태광문화사, 1984.
- 고정중, 『제주도 요람』, 1930.
- 박용후, 『제주도지』, 백영사, 1976.
-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1982.

V. 운동의 성격, 개념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운동의 성격은 주로 이전에는 보천교 항쟁, 난이었지만, 최근 10여년간 집중적인 조명, 연구를 거치면서 법정사 운동은 항일운동, 항일투쟁, 민족운동으로 보는 시각, 관점, 이해는 이제 보편화, 고착화 되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운동을 주도한 주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지금껏 불교, 선도교(보천교), 혹은 민중운동, 지방민들의 참여 등 다양한 관점이 제기되었다. 연구가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보천교 항쟁(난)으로 대부분 기록, 서술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봉옥 논문에 자세히 제시된 바가 있다. 김봉옥은 이 운동의 성격에 대하여 90년대 와서 최초의 글을 쓰면서, 이 운동을 법정사의 항일운동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소신을 개진하였다.

그후 학자들이 이 운동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결과로 최근에는 운동의 명칭, 성격에서 불교적인(법정사) 명칭이 자연스럽게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종교운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음도 지적되었다.

그렇지만 그 실제 이해에 있어서는 불교 중심적인 관점, 선도교(보천교)의 개입 및 영향력, 제주도민의 참여 등으로 다양한 이해가 나뉘어져 있다. 불교 중심적인 관점은 혜봉, 한금순, 김광식, 오성 등이며 선도교 관련성은 안후상,⁹⁾ 조성윤이 지적하고¹⁰⁾ 있으며, 제주도민

9) 그는 불교도와 보천교도들이 연합한, 남제주 민중들의 자발적 항쟁으로 표현했다.

10) 조성윤은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즉 “말하자면 김연일은 불교승려이면서도 당시 한창 유행하던 새로운 종교 사상의 흐름인 증산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나름대로 믿는 좀 복잡한 사상적 배경을 갖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그가 자리잡은 중문 일대는 그 뒤에도 제주도에서 증산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배출된 지역이라는 점을

의 참여라는 시각은 박찬식의 이해이다.¹¹⁾

이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개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10년대 전후의 제주불교의 상황을 객관적, 긍정적, 발전적으로 보자는 것이다. 지금껏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자도 없었고, 이 문제를 타개하려는 집단, 단체, 연구기관이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오성, 김광식의 논고가 일부 있는 형편이지만 그 당시에 보았던 여러 기록들의 정황을 유의하면 분명 제주불교를 재인식시킬 수 있는 자료, 내용이 적지 않다. 이런 것을 주목하지 않았고, 해석하지 않았던 제주불교 구성원들의 나약성이 아쉽기만 하다.

다음으로 필자도 법정사 항쟁에 선도교도(보천교도)가 관여되었음을 인정한다. 그는 기록상으로는, 구전으로는 여러 정황에 의해 동의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일부 연구자들이 주장, 강조하는 것과 같이 불교적인 주체(세력)와는 대등한 입장에 처하여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테면 보조적인 참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¹²⁾ 그

생각하면 김연일이 자신을 따르는 일행을 이끌고 법정사를 중심으로 불교교리와 증산사상의 가르침이 섞인 내용을 포교하였고, 지역 사람들중에 상당수가 교인이 되었다”고 서술했다. 이는 은연중 불교와 선도교의 결합을 강조하는 것이다.

- 11) 그는 다음과 같이, 즉 “법정사 항일운동은 민족의식을 가졌던 일부 불교승려 및 교도들과 민족종교인 선도교 교도와 중문지역민을 비롯한 제주도민이 결합된 항일운동으로 정확히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그가 강조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차원으로, 중문 일대에서 벌어진 것으로 운동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관점을 갖고 있다. 그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성격」(『제주도연구』 22)의 말미(15면)의 「부기」에서도 이 사건을 불교나 선도교에 국한된 단순한 종교운동이 아닌 중문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여한 지역운동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요약, 합리화하였다.
- 12) 이를테면, [동아일보] (1922.2.24), <독립당의 단체로 엄중, 종적 잃은 차경석>에서는 “무오년 11월에 전라남도 제주에서 그 교도들을 검거하기 시작하여 목포에까지 검거의 손이 미치지 않았으나 결국 모두 방면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한 정황은 위의 [동아일보]의 <풍설이 전하는 태을교 일교주의 死와 대분열>에서도 “그때는 총독부에서 집회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던 때이다. 그와 같이 많은 교도가 모이는 것을 정치운동의 음모

러나 보조적인 역할, 단순 참여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다. 그것도 고귀한 저항, 항쟁, 독립운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선도교에 대한 기록, 증언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껏 이에 대한 정황 이해는 막연하였다. 선도교 수령으로 알려진 박주석도 어느 기록에는 처사라고 나오며, 최근 박주석의 육지시절을 탐문한 구전 증언에 의하면¹³⁾ 그는 의병 경험을 가진 대상자라는 것이다. 요컨대 박주석과 선도교와의 연계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로 인정하고 무오년(1918) 11월에 전남 제주도에서 그 교도를 검거하기 시작하여“라 전한다. 여기에서 1918년 10월의 법정사 항쟁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다만 그들이 법정사 항쟁 직후에 검거, 조사받았음을 시사하는 표현이 나온다.

증산교단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법정사 항쟁과 보천교를 연결시킨 경우도 현재 필자는 보지 못하였다. 증산교단을 오랜 기간 연구한 김홍철은 이에 대해서 1918년 10월 보천교도 제주도 신도, 문인택이 교금 10만원을 갖고 나오다 발각되어 일제 경찰에 검거되었던 것을 강조하였다. 이 사건으로 보천교인이 전국적으로 검거선풍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이렇게 검거를 당한 것은 그해 9월(?)에 제주도인 김연일이란 술사가 불무황제라 자칭하면서 제주도민 수백 명을 거느리고 일본 경찰서를 습격하여 몇 명을 죽이고 도망갔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보천교와 연관이 있는가 하여 검거했던 것이다. 이는 이정립의 『증산교사』, 이영호의 『보천교연혁사』를 참고한 기술이다, 『일제하 증산종단의 민족운동』(1997, 증산종단연합회), 「일제하 증산교단의 수난과 그 대응」 170면 참조.

그러면 여기에서 『증산교사』 60면에 나오는 해당 내용을 소개한다. 즉 그는 “무오 9월에 제주도에서 김연일이란 술사가 불무황제를 자칭하고 섬사람 수백 명을 데리고 일본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여 순사 두어 명을 쳐 죽였는데 목포에서 일본 경찰관 대부대가 들어가서 토벌함에 섬사람들은 흩어지고 김연일은 도망하여 버렸다.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이 보천교도의 所爲라고 혐의하여 엄중하게 조사하던 중 10월에 제주도 교인 문인택이 교금 10여만 원을 면화 포대속에 감추어 가지고 나오다가 목포의 일본 경찰에게 발각되어 검거되고 인택의 口招로 고부인과 차운철과 방주 18인이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뒤이어 검거 선풍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이런 제반 내용으로 볼 때에 보천교도의 법정사 항쟁에서의 역할은 매우 미약한 것은 사실이었다.

- 13) 한금순은 그의 외손 이태수를 만나 박주석의 생애를 복원했다. 그에 의하면 박주석은 제주도로 오기 이전 압동에서 의병의 경험이 있었고, 그 전력으로 일제 고문과정에서 옥사를 하였던 것으로 추론했다.

보천교 관련 교단이 10여개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34년에 편집된 『고등경찰요사』에만 유독 박주석을 선도교 수령이라고 기재하였다. 여기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¹⁴⁾ 그런데 보천교 그들의 교전, 연구논문에 법정사 항쟁과 보천교와의 연관을 적극적으로 탐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가 알기에 1918년 그 당시에 선도교도, 보천교도가 참여하였다는 1차 문헌 기록은 없는 것이다. 그 후대의 상황이 1918년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은 아닌지 냉철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 1910년대 제주 종교상황과 선도교
- 일제하 제주도의 보천교 변동
- 김연일의 생애와 법정사 항일운동

이러한 연구가 심화된다면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가일층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진실, 실제적 사실 복원을 통한 다양한 학문적 작업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VI. 자료, 문헌 자료 및 구술 자료

역사 해석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의 기초이자 출발은 자료이다. 자료는 학문과 탐구의 출발이면서 교두보이다. 그래서 모든 해석 및 학문은 자료라는 곳을 통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을 비추고, 그것이 문제시 될 때에는 다시 자료로 돌아와서 읽고, 음미하고, 재해석해야

14) 혹시 1934년 직전 무렵에 박주석을 선도교 수령으로 기재한 연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

한다. 이런 점에서 연구자, 연구기관들의 자료수집에 대한 정열, 정성, 노력, 헌신은 실로 눈물겨운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성찰,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그간 연구자, 보훈처, 후손 및 유족들의 헌신에 의해서 다양한 자료가 발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수형인 명부(1918,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국가기록원)
- 형사 사건부(19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국가기록원)
- 정구용 판결문(1923.6.29, 대구복심법원 형사 제1부, 국가기록원)

이런 자료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간 발굴된 다음과 같은 미세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사건을 재구성하였던 것이다.

- 교도책임자 명부(1951, 태고종 제주종무원)
- 교적부(1947, 태고종 제주종무원)
- 방동화 승적첩(1940, 방진주 소장)
- 김석익, 『망형석성인행록』(1949, 국립제주박물관)
- 『근대 제주불교사 자료집』(2002, 제주불교사연구회)

그러다가 최근, 제주불교사연구회 회원이면서, 이 분야 연구자인 한금순은 새롭게 발굴한 자료를 갖고 연구 심화에 임하였다.

- 김연일 가출옥 증표(1923, 목포감옥 제주지소)
- 정구용 재소자 신분카드(1924, 대구교도소)
-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1928, 목포형무소)

그래서 필자는 이러한 문헌 연구들을 총집약해서 어느 단체에서 주관, 주체가 되든 반드시 이를 법정사 항일운동의 자료집을 발간해야 한다고 한다. 만약 이런 작업을 도외시 한다면 그는 문화적 소양이 박약한 소치, 역사의식의 미흡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자료집에는 법정사 항쟁을 보천교 소요, 난이라고 서술, 묘사한 1990년대 이전의 기록들도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음으로는 이 분야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이 자료수집, 현장 검증을 할 때에 녹취한 다양한 구술 테이프를 모아서, 채록하고, 정리하여 관련 구술 증언 자료집을 펴내자는 것이다. 이런 작업을 한 대상자는 제주불교사연구회(한금순, 한금실, 오성)와 김창민, 조성윤, 윤봉택 등이 우선 거론된다. 지금까지 채록한 것이 편중성이 있고, 추가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운 기획에 의거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업도 문헌자료집의 발간과 짝을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 구술 증언 자료집이 발간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법정사 항쟁의 연구가 새롭게 수준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나가 가름될 것이란 소신에서 이를 밝힌다.

Ⅶ. 결 어

이제 맺는말은 위에서 개진한 필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추후 이 분야의 연구 환경 진작에 일조를 기한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법정사 연구는 추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 이제 겨우 1단계가 종료되었을 뿐이다. 연구를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여기에서 연구를 중단함은 앞서 가신 법정사 항쟁을 주도하면서 희생된 영령에 대한 모독이다. 광주 지역의 5.18기념 재단, 기념사업회, 기념 연구소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것을 조성하지 못한다면 제주인의 게으름, 나약성의 다름이 아니다.

둘째, 자료집 발간 준비, 간행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이는 서귀포 시청, 법정사 기념사업회, 청년회의소 등 다양한 곳이 있지만 제주 현지사정에 의해 조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 고 그 실무작업에는 제주불교사 연구회 등 유관한 경험, 이력을 갖고 있는 단체에 위임하면 좋을 것이다.

셋째, 추후 이 연구는 자료집을 배포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제주도를 떠난 무대에서 연구 심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 법정사 성역화 사업이 그 골격을 가다듬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연구된 결과를 정리하여 관람자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법정사 항쟁을 알리는 어떤 책자를 만들어서 서귀포시민, 제주도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궁금하다.

다섯째, 그간 법정사 항쟁을 그간 이해의 주된 관점이었던 민족, 독립의 시각을 잠시 뒤로 미루고 이제부터는 생활, 종교, 지방, 삶 등 다양한 관점으로, 부드러운 관점으로 재해석하기를 권고하고자 한다.

[국문초록]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9년 10월 7일, 법정사와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 지역에 전개된 항일투쟁이다. 이 운동은 그간 연구의 손길이 닿지 않아, 그 개요, 성격, 특징 등에 대한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10여년간 집중적인 연구에 의해 그 전모의 대강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 결과 법정사 항일투쟁은 1910년대 국내 최대의 항일 무장투쟁의 위상을 점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항일투쟁을 대표하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항쟁은 서귀포 중문지역에 위치한 법정사라는 사찰에서 시작되었고, 항쟁의 주도도 김연일을 비롯한 다수의 승려들이 주도하였고, 지역주민 7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전개되었다. 비록 그 항쟁은 일제의 진압으로 무산되었지만 그 항쟁에 담긴 민족운동, 종교운동 등은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는 그 항쟁의 유적지를 성역화 하는 사업을 10년간 전개하여, 이제는 법정사 항쟁이 제주도의 대일항쟁을 상징하는 보편적 역사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이에 본고는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 한계, 추후의 연구 방향 등에 대한 것을 정리한 글이다. 이러한 연구의 회고와 전망을 통해 법정사 항쟁의 연구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법정사, 법정사 항일운동, 종교운동, 김연일, 방동화, 강창규, 보천교, 선도교

[Abstract]

**The Review and Outlook for the Inquiry
into the BupJeongSa Anti-Japanese Movement**

Kim Gwang-Sik
(Prof. of Univ. of Bucheon)

The BupJeongSa anti-Japanese movement was a conflict against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organized at BupJeongsa and the JoongMoon area in SeoGwiPo-Si on Jeju Island. Because this movement had remained untouched by researchers for a long time, there was not much known about it until recently. For the last ten years, however, the research into this matter has been paid great attention, and as a result of this focused study many aspects of its whole picture have been revealed.

The BupJeongSa anti-Japanese movement is now considered the most active armed anti-Japanese movement in the 1910s and also symbolizes all the resistance movements to Japan in Jeju Island. This conflict started from a Buddhist temple called BupJeongSa at the JoongMoon area in SeoGwiPo-Si. Many Buddhist monks including YounYil Kim led this and 700 local residents gathered to join it. Although this conflict was put down by the Japanese army, its peculiar features as the national and religious movement is worth great attention. The SeoGwiPo local government started a project to make the setting of the conflict into the sacred ground and

accomplished it within ten years. Through this project, the BupJeongSa anti-Japanese movement can now be recognized as a historical fact that symbolizes JejuDo resistance movement to Japan.

This article organized and reviewed the result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of the study about the BupJeongSa anti-Japanese movement. The research on the BupJeongSa movement will be expected to be more intensified through these review and outlook.

[Key words]

BupJeongSa, the BupJeongSa Anti-Japanese Movement, Religious Movement, YounYil Kim, DongHwa Bang, ChangGyou Gang, BoCheonGyo, SeonDoGyo

K C I

[참고문헌]

- 김봉옥, 「법정사 항일운동의 재조명」 『제주도사연구』 4, 1995.
- 임혜봉, 「제주도 법정사 스님들의 항일투쟁」 『서귀포시』 5, 1996
- 안후상, 「무오년 제주 법정사 항일항쟁 연구」 『종교학연구』 15, 1996.
- 박찬식, 「1918년 중문지역의 항일운동」 『제주도』 99, 1996.
- 김광식, 「해방직후 제주불교계의 동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2, 1998.
- 김광식,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 박찬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성격」 『제주도연구』 22, 2002.
- 제주불교사연구회, 『근대 제주불교사 자료집』, 2002.
- 김정인, 「법정사 항일투쟁의 민족운동사적 위상」 『제주도연구』 22, 2002.
- 김창민, 「법정사 항일운동 가담자와 운동의 성격」 『제주도연구』 22, 2002.
- _____, 「법정사 항일운동과 지역주민의 참여」 『제주도연구』 25, 2004.
- 조성윤, 「무오년 제주도의 종교상황과 법정사 항일운동」 『제주도연구』 22, 2002.
- _____,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제주도연구』 25, 2004.
- 정공식,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법적 고찰」 『법사학연구』 32, 2005
- 김광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재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2005.
- 한금순,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대각사상』 9, 2006.
- _____, 「이일선과 제주불교연맹」 『정토학연구』 9, 2006.
- 오 성, 「근대 제주불교의 태동과 관음사 창건」 『대각사상』 9, 2006.
- 김광식, 「제주 근대불교의 전개와 성격」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 도피안사, 2007.